

일제 식민통치하의 조선 체질인류학이 남긴 학문적 과제와 서구 체질인류학사로부터의 교훈

박순영*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고의 목적은 식민통치시기에 시작된 일제의 체질인류학이 물려준 유산이 오늘날 한국 인류학에 남긴 과제의 한 측면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체질인류학의 뿌리는 일제시기에 조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체질인류학 연구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연구업적들의 학문내적 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것이 후대의 학문 발전에 부과한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한국 체질인류학의 발전을 도모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서구 체질인류학의 전개사를 짚어 봄으로써 한국 체질인류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취해야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 체질인류학의 학문적 인지도는 너무도 낮다. 일제시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거의 한 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해방 후 1958년에 대한체질인류학회가 창립되어 반세기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층조차 체질인류학을 여전히 인종학과 동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종합과학을 표방하는 인류학에서 조차 인류의 문화적 측면을 연구하는 문화인류학과 생물학적 특성을 대상으로 하는 체질인류학이 전혀 학문적 교류나 공동의 관심영역을 가지지 않고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학문적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분리가 한국인류학계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체질인류학의 성격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근자에 체질인류학적 연구를 통합한 보다 포괄적인 인류학의 필요성이 한국의 문화인류학계 내부에서 제기된 적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수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전경수 1999a).

이러한 분리는 여러 제도적, 역사적 이유로 시작되었으나 이를 지속시키는 요인은 궁극적으로는 문화/생물학 이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생물학과 인간문화를 아우르는 종합학문으로서의 인류학을 하려면 그러한 학문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적 기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박순영 2003). 즉 인간생물학과 인간문화의 관계에 대한 공유된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이 있어야만 인간성의 다각적 국면에 대하여 각 학문적 전통이 제공하는 방법에 의해 도출된 연구 성과들을 통합하여 인류학의 궁극적 학문적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 한국 체질인류학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해부학적 내지 형태기술적 체질인류학만으로는 이러한 학문적 작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는 한국 체질인류학의 발달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뿌리를 일제에 의해 시작된 한국 체질인류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노트에서는 일제 시대에 시작된 한국 체질인류학의 학문적 성격을 검토하여 그것이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체질인류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서구체질 인류학사의 전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서구 체질인류학 발달사에서 인간 문화 연구와 인간생물학 연구가 맺어온 관계를 되짚어 봄으로써,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일제가 후대의 학문에 남긴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색의 해답은 서구의 전다윈주의적(pre-Darwinian) 체질인류학이 어떻게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진화과학으로 거듭남으로써 학문적 활로를 되찾고 인간에 대한 종합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일제의 체질인류학이 남긴 유산과 과제

본 장에서는 우선, 한국인에 대한 체질 인류학적 연구를 일제시기와 해방이후로 나누어서 그 성격을 검토해 보았다. 일제시기는 조사활동의 시기적 경향 변화 그리고 주요 인물과 그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보았다. 해방이후의 변화사는 한국의 체질 인류학계가 가진 자신의 학문적 뿌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론적 기초와 연구 활동의 경향에 있어 나타나는 연속성과 단절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과 일본에 산재해 있는, 일제시기에 조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체질인류학 연구 논문을 수집하여 각 시기별 발표 논문의 성향, 각 주제별 대표 논문의 내용, 주요 연구자의 학술활동사 등을 검토하였다. 조선에서의 체질인류학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본 인류학의 전개사를 간략히 검토하여 이를 조선 체질인류학의 성격 규명에 참고하였다.

1) 일제의 체질인류학

식민시대 조선의 체질인류학은 일본의 체질인류학을 바로 이식한 것이므로 조선 체질인류학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에서 근대 서양의 체질인류학이 어떻게 도입, 수용, 확립되었는지를 간략하게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수입된 일본의 인류학은 민족주의적 관심에서 시작되었고 식민주의의 전개와 더불어 성숙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Shimizu 1999). 19세기 말에 인류학적 관심을 가진 여러 분야의 아마추어들이 모여 포괄적 인류학의 틀을 가지고 도쿄인류학회를 창립하였을 당시의 주 관심사는 일본의 석기시대 연구를 통해 일본인의 민족적·문화적 기원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을 통해 서구에서 일어난 분야별 전문화가 일본에서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고고학이 먼저 분리되어 나가고 다음에 체질인류학과 민족학이 분리되었다. 인류학은 체질인류학을 의미하고 민족학은 광의의 문화인류학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그 분리는 완전하지 않아 체질인류학은 의학부의 해부학 교실을 중심으로 연구/강의되면서도, 민족학적 연구를 하는 학자들과 합동으로 학회를 개최하는 등 20세기 중반까지 공조 관계를 유지하였다(Shimizu 1999). 일본에서는 1930년대 말부터 인류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준비와 지원을 위한 연구 활동에 동원되었다. 당시의 이러한 연구조직 중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국립민족학연구소나 제국학술원의 동아시아민족연구위원회에서 체질인류학자와 민족학자가 공조하여 연구한 기록이 남아있다(Nakao 2002). 이는 일제치하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성제대 해부학 교실의 체질인류학자들은 같은 대학 사회학교실의 학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전경수 1999b). 이들은 함께 만주와 몽고 등지를 답사하며 자료를 수집하면서 식민통치와 연결된 인류학 연구 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정규영 1999). 특히 경성제대는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관군학 합작 학술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후 연구 분야는 조선은 물론, 만주, 몽고, 중국본토, 태국, 뉴기니까지 확대되었다. 해부학 교실의 체질인류학자 이마무라(今村)는 1945년 경성제대에 대륙자원과학연구소가 설립되자 소장으로서 조선인, 만주인, 몽고인, 이주 한인의 체능과 체격을 연구하여 이들의 인적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사회학 교실은 같은 지역에 대한 사회과학적 기초 조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한다(전경수 2002a, 2002b, 2003).

이들이 이러한 공조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이 어떠한 지적인 기반을 공유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학문발달사의 역사적 관성 때문인지 또는 연구조사활동의 편의성 때문이었던지는 분명치 않다. 아마도 위의 셋 모두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어떤 지적 기반을 공유하였다면 가능한 지적인 공동기반은 인간문화와 인간 체질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었을 것이다. 당시에 존재했던 유일한 이론이라면 19세기적 진화적 인종주의에 기반한 문화-인종관계일 터인데 과연 그것이 그들을 묶을 만큼 강한 설명력을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특히 서구제국의 체질인류학자들이 형태적으로 비교적 자신과 다른 연구대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질-문화 관계를 이론화하는 데 실패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웃집 원주민”(Walraven 1999)을 연구 대상으로 한 일제의 체질인류학자가 조선인에 대해 인종주의적 소신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질문거리이다. 서구의 인류학은 인종-문화 관계에 있어서 “진화적” 인종주의자에 대항하여 반인종주의적 인류학자들이 논쟁하는 과정을 통해 상당한 학문적 성숙을 이룬 데 비해 그러한 논쟁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이 일본 체질인류학의 성격, 나아가 조선에서의 체질인류학 연구의 성격에 깊은 흔적을 남겼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전후의 일본에서 민족학이라는 강의 명칭은 대체로 문화인류학이라

는 타이틀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Nakao 2002). 일본인류학회는 체질 인류학자들의 모임으로 전후에도 같은 타이틀을 유지하였으며 학회지인 “인류학잡지”에는 여전히 해부학적 연구가 많이 게재되었다. 형태기술적 연구의 학문적 영향력이 쇠락하였다는 원로의 탄식도 있고 새로운 경향의 연구결과도 게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들은 새로운 이론적 쟁점이나 질문을 제기하기보다는 민족기원이라는 오래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유전자 분석기법과 같은 새로운 테크닉을 이용한다든가 민족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산업적 목적으로 인체 계측치를 사용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2) 조선의 체질인류학과 형태기술적 연구

현대 한국의 체질인류학은 그 뿌리를 일제시대에 일본인에 의해 행해진 조선인에 대한 형태학적 연구에 두고 있다. 한국인 인체계측치가 서양인과 일본인 등에 의해 간간히 발표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고 난 1906년 이후에는 유럽인에 의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인에 의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일본인에 의한 본격적인 체질인류학 연구는 1908년 대한의원 교육부의 해부학 주임교수로 부임한 구보(久保)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유임되어 1923년 사임할 때까지 한국인 체질 연구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남겼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2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주로 “조선인의 인종해부학적 연구” 또는 “조선인의 인종학적 연구”라는 타이틀로 조선인의 신체 여러 부위를 계측한 결과를 발표한 일련의 글을 남겼으며 모발 특성을 기록한 글도 네 편이나 남겼다(박형우·여인석·정민석·정인혁 1990; 박형우·여인석·정인혁 1991; 여인석·박형우·정인혁 1990; 정인혁·박형우·정민석·유기수 1989). 이는 20세기 초반 인종

학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체격, 모발, 기타 신체 부위의 크기나 모양 등을 기술함으로써 인종 집단의 유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인의 체격이 일본인의 것 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그가 이에 대해 학문적 접근을 하기보다는 지계 짐을 지기에 적당한 신체라고 평하는 등 한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편견을 공공연히 입에 담아 경의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한 일도 있고 말썽을 여러 번 일으켰다는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다(장신요 1988).

1925년 구보의 후임으로 경성의전에 있던 우에다(上田)와 이마무라(今村)가 신설된 경성제대 의학부 교수로 취임하면서부터 한국의 체질 인류학이 본격적인 번영기를 맞이하였다. 이는 연구논문 편수에 반영되어 있다. 경성의전이 정착한 1920년대부터 연구논문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경성제대가 창설되어 연구 업적이 발표되기 시작한 193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장신요 1979). 1988년까지 발표된 한국인에 대한 체질인류학적 연구의 주제, 저자, 연도별 문헌목록에 따르면 1945년 해방 당시까지 발표된 글은 약 410여 편이다(박형우 등 1990, 1991; 여인석 등 1990; 정인혁 등 1989).¹⁾ 이 목록에 따르면 주요 발표지명은 조선의학회지(110편), 해부학잡지(48편), 인류학잡지(44편) 등이다. 일본인에 의해 일본어로 발표된 것(300편 이상)이 대다수인데, 특히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유럽인 연구자들의 업적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연구주제는 골격계통, 심장혈관계통, 신경계통, 특수감각기관, 피부계통, 내장계통, 근육계통, 신체계측 및 발육 등 전신을 다루고 있지만 어디를 다루든 형태기술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은 다름이 없다. 이런 점은 논문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는데 주로 “조선인” 또는 가끔씩은 “방인의 ……에 대하여” 또는 “관하여”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때로는 “조선인의 ……에 관한 연구”라는 타이틀을 쓰기도 하지만 의미는 “……에 관하여” 내지는 “……에

1) 장신요(1979)에 따르면 총 논문 수가 약 370여 편이나 박형우 등, 여인석 등, 정인혁 등이 작성한 문헌목록에는 주제에 따라 같은 논문을 이중으로 기재한 것도 있고 장신요의 조사 때 밝히지 못한 새로운 문헌도 추가되어 편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하여”와 큰 차이가 없다. 연구 주제별 변화를 보면 1914년까지는 골격 연구와 인체계측에 제한되어 있다가 1915년부터 모발 등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지만 본격적으로 연구 주제가 다양화된 것은 192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목록의 저자들이 나는 33개 소주제 별 편수에 따르면 인체계측 120, 두개골 49, 치아 44, 하지골 41, 지문 23, 모발 18 등으로 인체의 외적 형태적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 압도적 다수이며 골격 중에서는 특히 두개골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개골의 특성이 지능, 기질, 문화적 능력의 척도라고 믿었던 당시의 인종주의적 체질인류학의 성격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20년대 이후에 활동한 학자들 중에는 이마무라가 단연 눈에 띈다. 그는 경성제대 의학부의 교수로 있으면서 조선에서의 체질 인류학 연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인데 초기에는 주로 조선의 고분발굴 인골 연구에 관한 논문을 주로 발표했으나 30년대에 접어든 이후에는 동북아시아 여러 종족의 신체적 특질을 비교하여 상호관계를 밝히려는 글을 주로 발표하였다. 이는 일본의 대륙진출과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실제로 상기한 목록을 살펴보면 1930년대를 전후하여 전체 체질인류학 논문의 숫자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륙진출세력과 비례하여 “조선인, 지나인, 그리고 내지인”을 비교하거나 만주와 몽고의 제 민족간 특성을 비교하는 글의 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체질인류학계의 한 원로의 회고에 의하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는 일본의 제국대학들에서보다 더 많은 해부학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배정된 연구비도 막대했다고 한다. 이는 이민족인 조선인, 만주인, 몽고족, 한족의 체질인류학을 연구하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경성제대 해부학 교실이 담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며 이후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점거한 이후에는 이 센터가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하여 상당한 연구 활동을 했다고 한다(장신요 1988).

조선에서의 체질인류학적 연구관심사는 크게 고분 출토 인골이나 현

생 조선인의 특질 연구를 통해 민족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것, 인종적 우열성과 같은 식민통치의 이데올로기 구축과 관련된 것, 또는 식민지 경영이나 정책운영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 생산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상황은 서구의 식민지 체질인류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일제 식민지배의 진행에 따라 등장하는 연구 주제에 있어 변화가 나타나는 데, 30년대 중반부터 여러 이민족의 신체 특성비교가 출간되기 시작하며 4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혈문제 연구나 조선인의 체력, 노동력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연구 활동들과 식민지배가 맺고 있는 관계는 본고의 분석 대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인 것은 분명하다.

경성제대 해부학 교실에서는 조선인 후진도 양성하여 해방 당시까지 배출한 조선인 해부학교수가 5명이었으며, 이중 2명이 우에다에게서 배운 체질인류학자였다고 한다(장신요 1988). 이렇듯 일제 시대에 일본인에 의해 시작된 체질인류학이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현대 한국 체질인류학의 뿌리가 되었고 그 학문적 전통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다.

일제의 체질인류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제시기에 해부학자들에 의한 형태기술적 연구는 체질인류학이 진화과학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우선 주목하고자 한다. 당시 일제의 체질인류학은 서구의 체질인류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본적인 가정, 연구주제, 연구방법에 있어 동질적인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서구의 체질인류학은 18세기 이래 인간집단들의 상이한 형태학적 특징들을 연구함으로써 “인종의 역사를 재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19세기 말에 들어 종의 변화라는 진화적 사고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도, 저등인종에서 고등인종으로의 진보와 진보의 속도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 인종의 우열 차이가 존재한다는 신념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 신의 창조에서 자연선택에 의해 발생한 자연계의 질서라는 설명으로 대체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고는 20세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계속 지배적이었다. 당시의 형태학적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분류 그 자체였으며 집단 간의 우열은 거의 자명한 것이므로 조사를 통해 집단 간 형태적 상이성을 서술하는 것으로서 연구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체질인류학이 진정한 의미로서 진화과학으로 거듭난 것은 20세기 중반에 소위 “진화의 종합이론”이 확립되고 이것이 체질인류학에 통합되고 난 이후이다(Bowler 1986). 이렇듯 전다윈적(pre-Darwinian) 상태의 유형론적 체질인류학이 일제시대 조선의 체질인류학이다.

3) 해방 이후의 한국체질인류학과 형태학적 연구의 지속

일제에 의해 시작된 체질인류학은 해방과 6·25 전쟁의 혼란기에 그 학문활동이 중단되었다. 해방 후 1955년까지 10년간 한일 양국에서 발간된 한국인에 대한 체질인류학적 논문은 15편에 불과해 해방과 6·25를 겪으면서 위축된 학문활동의 양상을 짐작케 한다. 이 시기가 서구에서는 진화의 종합설이 체질인류학에 통합되는 중요한 학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바로 그 때라는 점에서 한일 모두 중요한 학문적 단절을 경험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수복 이후 학문활동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1958년에 대한체질인류학회가 창립되기에 이른다. 이후 학위에 대한 수요 증대와 연구생 제도로 교수와 지도학생의 공동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다수의 연구 업적이 출간된다. 해방 후 1970년대 말까지 보면 약 42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연구생 제도가 실시된 1960년대 중반 전후 10년에 집중되어 있다(장신요 1979).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연구생 제도가 끝나자 연구논문도 급격히 감소하고 체질인류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따라서 저하되었으며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장신요 1988).

불행한 것은 연구 논문수가 급증한 70년대 중반에도 새로운 학문적 전개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고 이전의 체질인류학적 주제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 하듯이 체질인류학회지 창간을 기념하여 발표된 한 원로학자의 회고록 에도 해방 이후사는 짧게 처리되어 있다(예를 들면, 장신요 1988). 즉, 해방 후의 한국 체질인류학은 일제시대 체질인류학에서 스스로 학문적 뿌리를 찾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제시대의 연구와 대개 같은 이론, 주제, 방법이라는 틀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가장 큰 차이라면 논문의 제목이 “조선인의 ……”에서 “한국인의 ……”로 바뀐 것이라고나 할까.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라세진(1964)이 발표한 글 “한국민족의 체질인류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 때까지 이루어진 한국인에 대한 체질인류 학적 연구를 집대성한 후 한국인의 형태적 특성에 기반하여 한국인이 일본인에 비해 우수하며 북방계 중국인과 근연성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국인의 우수성을 주장했다는 점만 제외하면 그의 저서는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체질인류학적 연구와 기본적인 가정이나, 연구방법, 자료해석 방법 면에서 대동소이한 연장선상에서 쓰여진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대개의 연구는 임상적 목적에서 실시된 것들로서 특별히 위 와 글과 같은 목적의식을 공유한 것은 아니지만 형태기술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물론 대다수의 체질인류학회 회원이 해부학 자이기도 하다. 형태기술적 연구 전통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의식이 제기 된 바가 없다는 것은 19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목록화 작업에도 반영 되어 있다. 이러한 방대한 분류 작업을 실시하면서 연구 질문 별로 글들 을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 하지 않았고 논문은 다루는 신체부위별, 발표 연대별로만 정리가 이루어져있다(박형우 등 1990, 1991; 여인석 등 1990; 정인혁 등 1989). 다른 방식의 목록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작업 의 배경을 설명하는 글에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형태기술적 연구이 외에도 신체계측이나 발육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은 대개 의류산업, 영양

학, 보건학, 체육, 군사 등 다른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물론 해부학 전통에서 출발하지 않고 현대적 진화이론으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의 학자들도 소수 있으며 이들은 대한체질인류학회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활동은 전체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독자적인 학문적 세력을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현대의 한국 체질인류학의 주류는 국제적인 체질인류학계의 동향과 상당히 동떨어져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질인류학은 사람의 체질특성, 기원과 그 진화를 연구하는 분야(장신요 1979)라는 자기 정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체질인류학의 주류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진화과학으로 아직은 “진화”하지 않았고 이것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있다.

3. 서구의 체질인류학으로부터의 교훈:

유형론의 극복과 진화과학으로의 “진화”

본 장에서는 일제가 후대의 학문에 남긴 유산을 극복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실마리를 서구의 체질 인류학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봄으로써 찾고자 했다. 이러한 모색의 해답은 형태기술적 연구에서 출발한 서구의 체질인류학이 어떻게 유형론을 극복하고 진화과학으로 거듭남으로써 인간문화와 인간생물학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는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이론을 제공할 때만이 인간이 지닌 종으로서의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체질인류학이 문화적 측면을 연구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인류학과 인류학이라는 우산아래 공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승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유럽의 민족학과 인종연구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유럽에서는 여러 인종 집단들이 어떻게 현재 위치에 존재하게 되었나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구성하려는 학문적 시도가 시작되었다. 형태학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인류 집단을 분류하고 이들의 기원을 포함한 생물학적 역사를 밝히려는 이러한 노력은 성서에 기반한 인류일조설의 근간 위에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문화와 인간을 동시에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나 초기에는 언어학적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Stocking 1973). 19세기의 성서적 전통에서는 문화적인 것이 체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동일 근원에서의 파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각 인종 집단 간의 신체적 차이는 환경에 따른 변화라는 틀에서 이해되었다. 이후 성서적 연구는 언어, 문화, 체질을 역사적 이주 연구의 틀로 묶은 민족학 연구로 진행되었다(Stocking 1987). 그런데 신세계의 발견과 더불어 일조설에 회의를 가지게 된 학자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지구의 역사를 짧다고 봤던 당시에는 신체가 환경에 의해 빨리 변화해야 일조설이 유지되는데 실제로는 인종의 신체적 특질이 역사 기록상 변치 않는다는 난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이 인체를 변화시키는 데 큰 힘이 없다는 것에 기반한 인류다조설이 19세기 중반에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점차 순수한 해부학적 입장에서 인종을 분류하고 이들의 역사를 재구성하려 했는데 이것이 체질인류학의 학문적 전통의 시발이다(Stocking 1987). 이들은 신체의 변형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 내 변이를 무시했으며 순수 인종 집단의 전형이 있다는 신념아래 고유한 인종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연구의 목적으로는 분류가 특히 중시되었는데 변형가능성이 없는 형질로서 집단 내에 동질적으로 나타나는 집단 고유의 특성을 분류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영국인류학 내에 민족학, 인류학, 사회진화론의 세 가지 전통이 각기 혼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족학 전통에서는

언어·민속 등 민족학적 자료를 통해 여러 인간집단의 관련성에 대한 역사적 문제의 해결을 지향했고, 인류학에서는 신체적 차이에 주목하여 비교해부학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한편 사회진화론자들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발전 단계별로 분류·서술하고자 하였다. 문화(사회)진화론 전통에서는 인간사회의 다양성을 체질적 차이와 관련해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다루었으며 단순한 분류적 관심보다는 역동적인 기원과 발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윈이 제창한 진화론에는 진보나 방향성의 개념이 없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진화론자들은 생물학적 진화를 진보와 동일시하고 이를 사회진화에 직접 대입하여 보편적, 사회문화적 진보단계를 상정하였다. 발달단계의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요청으로 인류의 정신적 제일성(psychic unity)을 상정해야만 했던 사회진화론자들의 논의에는 그러나 여전히 인종집단간의 차이라는 다조설의 영향도 공존하여서, 문화적 차이와 인종적 차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혼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영국에서 민족학적 전통이 우세해지면서 인류학은 민족학적 전통을 뜻하게 되었고 연구의 대상이 인종에서 사회문화로, 모든 민족에서 식민지의 미개인으로 바뀌면서 각 분야의 전문화가 심화되어갔다.

한편, 체질인류학 내부에서는 다윈 진화론 이후에도 인종은 여전히 하나의 분리된 자연 범주로 간주되었고 인체계측을 이용한 유형론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다. 진보로서의 진화라는 기본 가정 아래 형태적 특성을 연구하여 인류사의 재건에 일익을 담당코자하였던 것으로, 인종간의 차이는 불균등한 진보의 속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에서는 다조설의 영향도 사라지지 않고 인종집단의 분지가 오래 전에 발생했고 일단 분지 된 후 평행진화 되었다는 설명방식의 형태로 진화론에 통합되었다. 형태론적, 유형론적 연구는 비교해부학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분류 자체였으므로 집단간

상이성의 서술로 충분하며 상이성의 발생과정 즉 인종이 어떻게 분리되는지에 대한 이론은 부재하였는데 이는 사실 자체가 연구주제를 설명한다고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형태적 연구에서는 특히 두개골이, 주목의 대상이었는데 이는 두개골의 특성이 지능, 기질, 문화적 능력의 척도라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런 연구는 진화적 인종주의의 형태로 식민정책이나 인종정책의 영역에서 대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연구는 비록 진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는 했으나 진화라는 개념을 진보와 등치시키면서 변이가 아니라 전형에 주목하여 정적인 타입을 구성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전다윈적(pre-Darwinian) 사고에 기반하고 있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위와 같은 해부학적 체질인류학이 발달하여 인류학이라는 명칭을 차지하게 되었고 민족학의 전통과 새로운 진화론 전통이 강했던 앵글로 아메리칸 인류학에서는 체질인류학이 일반 인류학의 여러 분야(민족학, 언어학, 선사고고학, 체질인류학)의 하나로 존재하게 되었다. 진화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 의해 이런 분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사회인류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본격적으로 성립되면서 체질인류학과는 점차 결별의 길을 걷게 되었다.

2) 보아즈와 포괄적 미국인류학

19세기 말 이미 인종학적 체질인류학은 학문적으로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20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Stocking 1968). 시간의 경과와 환경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순수인종 개념으로 인종을 세분하려는 노력을 진행하면 할수록 해결불능의 벽에 부딪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막대한 인체 측정자료는 쌓여갔으나 이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학문적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보아즈(F. Boas)는 19세기의 인종주의적 가정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통해 인종-문화의 고리를 끊음으로서 체질과 문화 두 영역을 분리시키고 같은 맥락에서 문화진화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각 문화의 독립적인 발달 과정에 주목하는 역사적 특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미국문화인류학에서 문화결정론적 사고가 정착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인류학에서는 보아즈로부터 시작하여 문화는 생물학과 완전 결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후로 인간은 무한히 유연한 존재로서 즉 소위 말하는 인간이 지닌 문화적 능력(capacity for culture)이 진화한 이후 인간문화의 방향은 인간생물학에 의해 전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내내 보아즈 추종자와 인종주의자 사이의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여러 역사적, 지적, 사회적 요인이 반인종주의적 보아즈주의자를 궁극적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포괄적 인류학을 미국인류학의 특성으로 자리 잡도록 기여를 한 사람도 보아즈이다. 보아즈는 민족학의 역사적 연구에 체질인류학의 자료가 가진 효용에 관심을 가졌다. 즉 민족들간의 역사적 관계 규명에 참고가 되고 인류의 초기사 문제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 때문에 체질인류학적 연구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스스로 연구하기도 하였다. 19세기 말 유럽 대륙의 체질인류학이 대규모 측정을 주로 했으나 통계적으로는 아직 평균치를 이용하는 수준이었다면, 보아즈는 갈톤에 의해 개발된 당시로는 세련된 생물 통계기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지식을 배경으로 인종연구에 있어서도 아이디얼 타입을 거부하고 평균이 아니라 현상의 실질적 분포에 대한 경험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보아즈는 인종의 특성을 정적인 타입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환경에서 유전적 소양과 성장 과정이 상호작용한 산물로 파악하였으며 타입 서술이나 분류자체보다는 어떻게 그러한 특성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의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보아즈의 체질인류학 연구는 민족사 연구의 보조적 수단이었으며 환경에 대해 민감한 신체적 변형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의 문화적 요인의 종속변수로서 흥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Boas 1894, 1911). 이민자의 두개골 형태에 대한 연구가 바로 그러한 접근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Boas 1908). 보아즈의 이러한 접근은 이후에 미국 체질인류학에서 영양수준, 질병, 문화적 관습, 도시화, 이주, 기후, 고도, 사회경제적 수준, 가족의 크기와 구성에 따른 체격과 체능, 건강 수준의 연구 등 여러 종류의 인간 적응성 연구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체질인류의 주류이던 형태학적 연구전통에서는 인체계측에 기반한 유형론적인 연구를 계속 진행하였고 여러 지적,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문화와 생물학의 연구를 점차 분리된 영역으로 몰아갔다. 일차대전 이전에 사회, 문화인류학이 성립되고 민족지적 현상에 작동하는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주목하는 기능주의적 관점이 주도적으로 되면서, 문화인류학은 체질인류학과 점차 분리되었다. 뿐만 아니라, 진화적 인종주의가 여러 사회적 논쟁을 야기하면서 인류학자들은 지속적으로 문화결정론적 입장을 천명해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미국인류학에서 체질인류학과 문화인류학은 한 우산 아래에 같이 있기는 하였으나 즐거이 함께 살았다기보다는 주로 서로 무관심했고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별로 헤어져야 할 이유도 없어 끈을 유지한 관계에 가깝다.

3) 신다윈니즘과 생물학적 인류학의 등장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진화의 종합설이 성립되고 이를 계기로 신다윈주의가 체질인류학에 통합되면서 반유형론적인 보아즈류의 문화인류학과 체질인류학의 타협가능성이 발생하였다. 유형론적 체질인류학의 시대가 마감되고 역동적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로 변화함으로써 변이의 기원과 전달, 분포양상, 그리고 집단간 상이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가설을 검증하고 이로써 이론을 수립하는 신다윈주의적 체질인류학의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이에 1951년에 워시번(Washburn)이 새로운 체질인

류학의 성립을 선언하기에 이른다(Haraway 1988). 그는 인종의 역사 연구와 인종의 유형론적 연구와 결별을 선언하였고 인간행동과학을 지향하는 체질인류학을 할 것을 주창하였다. 그의 입장은 당시의 많은 젊은 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다. 이후로 진행된 체질인류학은 그 성격상 인류진화생물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마땅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체질인류학자들이 자신을 생물학적 인류학자(biological anthropologist) 또는 생물인류학자(bioanthropologist)라고 부르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강해지고 있다.

한편 이 시기에 이르러 문화인류학자들 중에서도 진화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여 1960년대에는 신진화론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문화인류학에서는 생태적 조건에 대한 적응으로서의 문화 연구나 문화의 보편진화와 특수진화론 등이 나타났다. 고고학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신고고학 또는 과정주의(processualism)란 이름하에 문화변동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연구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인류학의 여러 분야가 진화라는 공통의 개념 틀 아래 연대한 것 같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당시에는 인간생물학과 인간문화의 관계에 대한 어떤 구체적 이론도 제시된 적은 없으며 각자 다른 목적과 의미로 다윈주의에서 도출된 말을 함께 사용했음에 불과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인간문화의 집단역학적인 양상을 묘사하는 데 아닐로지로서 다윈주의에서 진화와 적응의 개념을 빌려왔을 뿐이었다. 따라서 문화/생물학의 이분법은 본질적으로는 도전 받지 않고 강고히 유지되었다. 인간생물학이 인간문화에 대한 독립변수였던 인종주의 시대의 문화-생물학 관계가 단절된 이후 인류학 내에서 그 둘은 서로 분리된 채 각자 독립적인 길을 걷거나(유럽에서는 완전히 딴 집에서, 미국에서는 한 집에서 따로) 또는 문화연구의 종속변수로서의 인간생물학을 연구하는 체질인류학으로서 겨우 함께 존재하던 두 분야가 진화라는 개념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으로 말미암아 표면적인 화해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뒤이어 1980년대에 문화인류학에서 인문학적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런 표면적인 화

해의 제스츄어마저 서로 취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까지 체질인류학과 문화인류학이 포괄적 인류학으로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함께 출발했던 과거나 제도적 통합이나 또는 인간 이해를 위해서는 양 측면이 모두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당위론만으로는 충분치가 못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학문적인 통합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면서 궁극적인 해결과제가 바로 인간문화와 인간생물학의 관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확립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4) 진화: 인간보편성과 문화다양성의 “유일한” 연결고리

진화가 인류학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참으로 모순적인 것은 체질인류학과 선사고고학에서는 진화가 핵심적 이론적 개념이지만 문화인류학자들은 이에 대해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문화인류학자가 진화를 지지하는 것은 인류가 진화한 하나의 생물학적 종이라는 데까지이다. 대개의 문화인류학자는 인간의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생물학을 끌어들이는 것을 혐오한다(예를 들어 Sahlins 1976). 약 30년 전 윌슨(E. O. Wilson)의 사회생물학이 문화인류학자들에게서 얼마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지 상기해 보라(Seegerstrale 2000). 물론 인류학자들 중에서도 생물학적 진화와 적응의 개념을 가지고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소수에 불과하다(예를 들면 Smith & Winterhalder 1992). 대다수의 문화 인류학자들은 진화를 인간이 문화적 능력(capacity for culture)을 보유한 데까지만 설명적으로 유효한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 인간이 문화적 존재로서 살아 갈 수 있는 것은 무한히 유연한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학습 능력을 보유한 이후부터는 인간문화는 인간생물학으로부터 자율적일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인간-문화 관계에 대해서는 이 둘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고 막연히 언급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더 이상은 문제시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대의 어떤 인류학자도 실제로 인간정신이 무한히 유연하다고 믿지는 않겠지만 마치 그러한 듯이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여기에 머무른다면 인류학이 자연/문화 이분법을 극복하여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질 것이다.

인간 문화에 있어 보편성이란 드물거나 이론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문화인류학계가 도달한 일반적인 합의인 것처럼 보인다(Brown 1991). 보편성과 다양성이 모두 인류학의 관심 대상이라고 개론서에서는 흔히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편성은 인류학의 주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적이라고 불리는 인간사가 자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고 논리적으로 가능한 정도로 변화무쌍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즉, 다양성은 조직되어있다. 이러한 다양성의 조직 내지 분포상의 규칙성은 인간의 조건, 인간사, 인간본성의 이해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요구되는 현상이다. 문화인류학에서는 민족지적 기록을 통해 인간 보편성에 대한 경험적인 반대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다양성에 대한 증거는 인간행동의 표면적인 다양성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담당자의 의미부여의 다양성에서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행동의 다양성이나 의미부여의 다양성이 인간 보편성에 대한 반대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는 입력(즉, 정보, 조건, 환경, 또는 맥락)이 다르면 같은 정보처리 메커니즘(즉, 진화된 하나의 종으로서 지닌 보편적 인간심리구조)에 의해서도 다른 출력(즉, 관찰 가능한 행동의 패턴, 의미부여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박순영 2003).

규칙성의 발견은 적절한 증거들의 존재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은 진화된 종으로서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 보편성에서 찾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진화된 마음의 구조가 그 길잡

이로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진화심리학은 1970, 80년대 이래 서구에서 일단의 인류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학문적 시도로서 인간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관계에 대하여 탐구하고 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있다(Barkow, Cosmides, Tooby 1992). 이들에 따르면 진화한 인간 심리구조에는 내적 구조가 있다. 이러한 인류 보편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인간문화의 다양성은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소수의 인류학자들이 진화심리학의 아이디어가 문화 연구에 적용가능한지를 이미 검토하기 시작했다(Kuper 1996). 여기에는 덴 스퍼버(Sperber 1996), 모리스 블록(M. Block), 그리고 크리스티나 토렌(C. Toren) 등이 포함된다(Whitehouse 2001).

이러한 학사적 전개과정을 볼 때, 결국 인간에 대한 종합과학으로서의 인류학의 가능성은 진화한 종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보편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현재까지는 진화만이 하나의 종(species)으로서 인간이 지닌 보편성을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화이론만이 인간존재의 각기 다른 차원에 대한 설명들을 수직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체질인류학은 인간진화생물학이 될 때에만 인간-문화 관계에 대한 생산성 있는 설명 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서구의 체질 인류학 발달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이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한국의 체질인류학이 일제에 의해 해부학 교실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것, 당시의 체질인류학은 형태기술적·인종유형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다윈적 학문이었다는 것, 해방이후 학문 활동의 단절기를 겪으면서 일제의 해부학적 인류학을 완전히 넘어

선 진화과학이 되지 못했다는 것, 결국 학문적 활력이 쇠락하고 사회적 인지도와 기여도도 격감했다는 것이 일제의 체질인류학이 물려준 유산이다. 한국의 체질인류학이 학문적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향후의 과제는 진정한 인간진화생물학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일제 식민지시기부터 현재까지 주류인 형태학적 체질인류학은 인간-문화 관계에 대한 설명력 강한 이론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질인류학이 진정한 진화과학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에만 인류학의 학문적 지평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간문화와 인간생물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추신: 향후의 과제

본고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향후의 과제로 남겨진 중요한 문제를 덧붙여 언급하고자 한다. 식민지배자가 식민지 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식민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조선사회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록으로 남아 있다(박명규·서호철 2003). 물론 조선인의 신체도 그러한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 주제로 출판된 논문의 수와 종류만 봐도 당시에 얼마나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조선인의 신체에 대한 연구, 특히 그 중에서도 체질인류학적 연구는 서구에서 발생한 체질인류학이 지닌 성격 때문에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인종의 역사를 재건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서구의 체질인류학이 19세기 후반기에 서유럽인의 우월성을 확신하는 인종결정론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럽 특히 독일에서 인류학을 수입해 온 일본의 체질인류학자들이 조선인의 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시아의 유럽인을 지향했던 일본인 사이에 피식민지 조선인을 열등한 미개인으

로 바라보는 식민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들은 식민지 이데올로기 개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식민지 경영상의 필요에 부응하고 군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들을 수행했을 것이다. 식민 통치가 진행됨에 따라 식민지 경영에 직접 관련 있거나 전쟁수행에 필요한 조사활동들은 관군화 합작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런 연구들은 임상의학이나 집단 보건 위생학적 연구, 일선인 혼혈아에 대한 우생학적 연구, 각 민족의 신체적 특성, 인종적 기원, 인종분포지도 조사, 전쟁동원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조선인의 체력과 출산력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체질인류학적 연구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현재까지 명확히 평가된 바가 없다. 이는 앞으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대한체질인류학회가 작성한 목록에 따르면 1945년 이전에 발표된 한국인에 대한 체질인류학적 연구 논문은 현재 알려진 것만 약 400여 편에 이른다(박형우 등 1990, 1991; 여인석 등 1990). 이 연구의 대부분은 일본인 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조사활동의 성격이나 각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적은 아직 없다. 체질인류학자들의 대부분이 해부학 배경을 지니고 있어서 이러한 자료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자료들이 전문용어와 수치로 정리되어있어서 인문학자가 접근하기도 매우 어렵다. 누가, 어떤 의도로, 누구의 지원을 받아 어떤 조사를 했는지, 이런 조사들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효과를 내었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장치는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서구의 식민주의와 인류학의 관계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논의되었다(예를 들면, Asad 1998). 반면에 일제식민통치 그리고 뒤이은 전쟁기간동안 일본인류학이 아시아 각 지역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2002년과 2003년에 서울에서

“일본 식민주의와 동아시아 인류화 포럼”이 열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한중일 삼국의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그래도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논의는 민속학연구나 문화인류학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식민통치 기간에 이루어진 신체에 대한 연구는 그 주제, 대상, 의도, 효과 면에서 다양하고 시기별로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연구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져있지 않다. 어떤 정책적 의도에서 실시된 연구이며 그 결과는 어떤 효과를 내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일제 식민통치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역사학적, 사회과학적 논쟁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제 시대에 실시된 신체 연구의 결과는 일단 그것을 시기별, 지역별, 인구집단별로 표준화하여 집대성하면 일제식민통치시기 조선사회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 인간집단 신체 크기의 특정 차원은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의 복지수준을 잘 나타내 주는 민감한 생물학적 지표이며 이 지표는 시대나 지역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비교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체질인류학 연구 자료가 이러한 지표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전문가가 당시 연구 결과들의 신뢰도를 먼저 평가해야한다. 평가를 마친 자료들을 집대성하면 식민지시기 연구에 사용가능한 새로운 사료로서의 가치가 증대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식민시기의 성격에 대한 논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 한국인의 체질인류학적 연구에서 비교 치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도 커질 것이다.

참고문헌

라세진

1964 “한국민족의 체질인류학적 연구,” 『한국문화사대계 제1권』, 고려대학교 민족 문화연구소, pp.87-233.

박명규 · 서호철

2003 『식민권력과 통계: 조선총독부의 통계체제와 센서스』,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순영

2003 “마음의 진화와 문화,” 『철학연구 제59집 별책, 진화론과 철학』 pp. 335-367.

박형우 · 여인석 · 정민석 · 정인혁

1990 “한국인의 체질인류학적 특성 및 형태에 대한 문헌목록: II. 심장혈관계통,” 『체질인류학회지』 3:41-46.

박형우 · 여인석 · 정인혁

1991 “한국인의 체질인류학적 특성 및 형태에 대한 문헌목록: VIII. 신체의 계측 및발육,” 『체질인류학회지』 4:63-73.

여인석 · 박형우 · 정인혁

1990 “한국인의 체질인류학적 특성 및 형태에 대한 문헌목록: III. 신경계통 IV. 특수감각계통, V. 피부계통, VI. 내장계통, VII. 근육계통,” 『체질인류학회지』 3:157-167.

장신요

1979 “우리나라의 체질인류학,” 『대한해부학회지』, 12(1): 11-15.

1988 “한국의 체질인류학에 대한 회고,” 『체질인류학회지』 1(1): 1-15.

전경수

1999a “미래의 한국인류학을 위한 제언: 한국문화인류학회 창립40주년에 부침,” 『한국문화인류학』, 32(1): 287-312.

1999b 『한국인류학 백년』, 일지사.

2002a “식민과 전쟁의 일제인류학: 대북제대와 경성제대의 인맥과 활동을 중심으로 1,” 『비교문화연구』 8(1): 61-136.

2002b “식민과 전쟁의 일제인류학: 대북제대와 경성제대의 인맥과 활동을 중심으로 2,” 『비교문화연구』 8(2): 135-167.

2003 “식민주주의에서 점령지주의로: 일본인류학 진화과정의 일면,” 『일본식민주주의와 동아시아 인류학 제2차 서울대회 발표논문집』, pp. 82-113.

정규영

1999 “콜로니얼리즘과 학문의 정치학: 15년 전쟁 하 경성제국대학의 대륙연구,” 『교육사학연구』 9: 21-36.

정인혁 · 박형우 · 정민석 · 유기수

1989 “한국인의 체질인류학적 특성 및 형태에 대한 문헌목록: I. 골격계통,” 『체질인류학회지』 2: 159-170.

Asad, Talal (editor)

1998 *Anthropology and the Colonial Encounter*, Amherst, New York: Humanity Books.

Barkow, Jerome H., Leda Cosmides, and John Tooby

1992 *The Adapted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Generation of Culture*, Oxford Univ. Press.

Boas, Franz

1894 “The anthropology of the north American Indian,” In Stocking Jr., George (editor, 1974) *A Franz Boas Reader: the Shaping of American anthropology, 1883-191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91-201.

1908 “Changes in immigrant body form,” In Stocking Jr., George (editor, 1974), *A Franz Boas Reader: the Shaping of American anthropology, 1883-191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02-214.

1911 “Instability of human types,” In Stocking Jr., George (editor, 1974), *A Franz Boas Reader: the Shaping of American anthropology, 1883-191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214-218.

- Bowler, Peter J.
1986 *Theories of Human Evolution: A Century of Debate, 1844-1944*,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rown, Donald E.
1991 *Human Universal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Haraway, Donna J.
1988 "Remodelling the human way of life: Sherwood Washburn and
the new physical anthropology, 1950-1980," In Stocking Jr.,
George (editor, 1990), *Bones, Bodies, Behavior: Essays on
Biological Anthropology*, The Univ. of Wisconsin Press, pp.
206-259.
- Kuper, Adam
1996 *Anthropology and Anthropologists: the Modern British School*,
New York: Routledge.
- Nakao, Katsumi
2002 "Japanese Anthropology In Japan and East Asia," 비교문화연구
소 집담회 발표논문.
- Sahlins, Marshall
1976 *The Use and Abuse of Biolog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eegerstrale, Ullica
2000 *Defenders of the Truth: the Battle of Science in the
Sociobiology Debate and Beyond*, Oxford University Press.
- Shimizu, Akitoshi
1999 "Colonialism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anthropology in
Japan," In van Bremen, Jan and Akitoshi Shimizu (editor),
Anthropology and Colonialism in Asia and Oceania, Curzon
Press, pp.115-117.

Smith, Eric Alden and Bruce Winterhalder (editor)

1992 *Evolutionary Ecology and Human Behavior*, Aldine de Gruyter.

Sperber, Dan

1996 *Explaining Culture: A Naturalistic Approach*, Cambridge: Blackwell.

Stocking Jr., George

1968 *Race, Culture, and Evolution: Essays in the History of Anthropology*, New York: Free Press.

1973 *From chronology to ethnology in James Crowles Prichard Researches into the Physical History of Ma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ix-cx.

1987 *Victorian Anthropology*, New York: Free Press.

Walraven, Boudewijn

1999 "The natives next-door: ethnology in colonial Korea," In van Bremen, Jan and Akitoshi Shimizu (editor), *Anthropology and Colonialism in Asia and Oceania*, Curzon Press. pp.219-214.

Whitehouse, Harvey (editor)

2001 *The Debated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versus Ethnography*, Berg Pub Ltd. pp. 203-223.

〈Key Concepts〉: Korean Physical Anthropology, History of Physical Anthropology, Descriptive Typological Studies, Biological Anthropology, Evolutionary Science

Academic Tasks Left by Physical Anthropology under Japanese Colonialism and Lessons from Experiences of Western Physical Anthropology

Sunyoung Pak*

The field of physical anthropology is not well known to both the academia and the general public in Korea. Furthermore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has had virtually no scholarly interactions with cultural anthropology that explores cultural aspects of man.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hysical anthropological studies on Korean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and attempts to find a wa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at the physical anthropology during the Japanese rule put on the later development of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in an effort to suggest a future path of sound development of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This paper draws upon the history of development of physical anthropology in Western countries for lessons to be learned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For the keys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y be found in understanding the way in which Western pre-Darwinian physical anthropology overcame racism to become a viable science and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a comprehensive science of man by successfully transforming itself into a true evolutionary scienc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physical anthropology in Korea started mainly as a field of anatomy, that it was pre-Darwinian in its focus on morphological descriptions and racial typologies, and that, with the prolonged interruption in academic activities following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it failed to become an evolutionary science that went beyond anatomical anthropology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legacy of which consequently was the weakened academic productivity and the marked decline in social recognition of the field and its contribution to the society. The task for Korean physical anthropology to undertake in order to become a viable science is for it to be reborn as a true human evolutionary biology because morphological physical anthropology that has persis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day does not have the potential to provide a feasible theo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iology man and human culture. When Korean physical anthropology becomes a true evolutionary science, it will have something to contribute to the facilitation of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culture and human biology that are necessary to extend the academic horizon of anthropology.